

I. 서론

‘사랑’은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다수의 철학자들과 작가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에 대하여 각자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현재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사랑의 유형들 중에서 아가페와 에로스 사랑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가페는 기독교적인 사랑이며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에로스에 대하여 알려진 의미는 위와 같다. 하지만 김영균(2013)의 설명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적인 욕망에 한정되는 표현은 아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강력한 욕망을 지칭하는 말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로스는 ‘욕망’이라는 요소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아가페의 의미가 그 본질적인 점에서 무엇보다도 신의 피조물에 대한 아래로 향한 사랑의 성격과 은총을 가리킨다(홍명순, 2007). 반면에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 즉 연인과의 연애적인 감정을 동반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향연』에서는 에로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류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찾아내고 저마다 평생 사랑할 상대를 만나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네. 그것이 우리의 이상이라면, 그 이상에 되도록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최선의 선택이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꼭 드는 연동을 만나는 것일세. 그리고 그런 연동을 만나게 해주는 신을 찬미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에로스를 찬미해야 할 것이네(Plato, 2008).

플라톤이 서술하는 바에 의하면 인류의 행복과 사랑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인간의 삶의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완전무결한 사랑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대상이 바로 에로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로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며 이러한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신인 에로스를 찬미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는 이와는 다르다. 아가페는 매우 넓은 범위 안에서 전 인류적, 우주적

인 사랑을 이상향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이루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가페는 그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는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 시각적 형상은 위에서 아래로 라는 형태를 취하며, 이는 동정과 관련을 가진다. 즉 피조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으로서의 신의 사랑으로, 여기에서 파생되어 인간들 상호간의 '이웃사랑'이나 인간의 동물과 자연에 대한 공감적 사랑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홍명순, 2007).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예수님을 인간이 거류하는 지상세계로 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은 죄인이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로스는 아가페와 같이 전 인류를 포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에로스 사랑의 초점은 육체적인 요소에 기반을 둔 사랑이며 인간 중심적인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에로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아가페와 에로스 사랑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아가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대표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에 위치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교육자로서 피교육자에게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을 받는 이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들이 받은 사랑을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아가페와 상반되는 사랑의 개념인 에로스는 인간이 능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을 투영함과 동시에 개인의 감정을 동반한 사랑이라고 하겠다. 에로스의 사랑이 고대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유형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랑의 의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그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서술하겠다.

II. 아가페 사랑의 의미

아가페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개념이며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서도 아가페와 같이 전 인류를 포괄하면서 희생과 섬김을 지향하는

사랑은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가페는 자기희생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동반한다.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는 인간을 위한 조건 없는 희생이다(서병창, 2004).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를 대신하여 책임지거나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 인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는 일은 더욱 불가능한 행동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멸망을 방지하지 않으셨다(송은신, 2024).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공동선을 우선 순위로 두며 공동체의 행복과 안녕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신뢰와 믿음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은 자력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는데 아가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며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 개념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Nygren, 1953)하고 있으며 사랑은 인류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확연히 드러내어 보여주었다. 인간이 행하는 사랑은 서로가 애정을 나눔에 있어서 필요에 의하여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값을 지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절대적인 자기희생과 헌신을 동반한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였으며 그 사랑을 그들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가르친다. 자기 자신만이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가페의 사랑이 개인의 이익과 실리를 구하기보다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서 전하기를 원했던 아가페는 이미 단순한 교육적인 교훈을 넘어서 철학

적이고 실천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가 보여준 아가페는 자신의 전 인생을 희생하며 보여준 삶의 교육과 인격적인 완성을 위한 표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김영훈, 2014).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절대적인 사랑의 교훈을 전달하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랑이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았음을 증거 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인간을 향한 신(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아가페이다.

이웃 사랑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배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율법이 아닌 사랑의 통제를 받는다(Nygren, 1953)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명령한 말씀은 그들 자신만 그 사랑을 소유하기보다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과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라고 하겠다. 즉,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보다는 타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며 그들의 필요를 시의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마음과 실제적인 행동인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대응한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선민인 “특별한 백성”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의 범위는 선민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까지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사랑의 한계는 항상 남아있다. 반면에 기독교의 사랑은 이런 한계들을 모두 뛰어넘는다. 기독교적 사랑은 보편적이며 포괄적이다(Nygren, 1953).

아가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상응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러한 사랑은 타인의 어려움과 고초를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하면서 가장 적절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아가페는 타인을 위하여 사랑을 행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이 성경에서만 이해하고 체현하였던 아가페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하나님의 아가페와의 연관성은 이웃사랑의 경우에 가장 명백하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든 지 항상 이러한 연관성은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배제되어선 안 된다. 기독교적 사랑은 평범한 인간적인 사랑과 다르다. 기독교적 사랑의 독특성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발견되는 아가페적 특색이 없는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다(Nygren, 1953).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대상을 사랑함에도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자신이 상대를 사랑한 만큼 자신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애정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감정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을 완전히 체득하고 전적으로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이 내면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III. 에로스 사랑의 의미

에로스 사랑은 일반적으로 이성과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에로스(Eros)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이며, 플라톤의 대화편 <symposion (향연)>에 의해 철학적 무대에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개념(김영철, 2020)이다. 플라톤의 『향연』의 주제는 ‘에로스(erōs)’(양운덕, 2010)인데 이 사랑은 상대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욕망 혹은 갈망 또한 포함하고 있다. 연인들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며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는 달리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톤적 에로스는 전체적으로 자기중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Nygren, 1953)고 말할 수 있다.

에로스(eros)는 무엇인가? 에로스는 욕망이다. 그리고 욕망 없이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일련의 언명은 인간 실존에 욕망이 근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고, 실존하는 이상 인간이 욕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간 조건을 담지하고 있다. 나아가 에로스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 말은 욕망하는 존재인 인간이 대상 지향적인 존재라는 의미이다(조홍만, 2012).

에로스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전제로 하는데 상대에 대한 욕망이 상실된 에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며 그 대상이 인간이든 사물이든 어떠한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추구하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의 에로스, 즉 에로스적 사랑은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나 욕구에서 발생하는 사랑으로 생각한다(김영철, 2020).

처음에는 육체적인 면, 욕망에서 출발한 에로스는 지혜를 추구하면서 정신적인 측면으로 나

아가게 되는데, 장영란 · 황수영 · 신지영 · 강미라(1999)는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다. 따라서 에로스는 원래부터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단순히 육체적 본능과 감각적인 영역이 아닌, 지성의 단계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또한 에로스적 사랑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아름다워지고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김영철, 2020) 고 주장하는데 Plato(2008)는 『향연』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름답고 올바르게 행해지면 아름다운 행위가 되고,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행위가 될 것이네. 사랑하는 행위와 에로스도 마찬가지로, 모든 에로스가 아니라, 아름답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에로스만이 아름답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네.

본 인용문이 주는 시사점은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릇된 행위에 의하여 오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에로스는 자신의 공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상에 도달하며 아름다워질 수 있는 사랑이므로 자신의 열심성과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에로스의 모든 노력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각계로부터 초자연적 · 천상적 생명으로 향하도록 이끄는 것(Nygren, 1953)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 중 하나는 소년애(동성애)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성행하였으며 현재에도 수많은 찬반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이다. 플라톤의 『향연』에서는 연장자와 소년과의 사랑을 긍정하였는데 진현경(2022)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고대 희랍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훌륭한 성취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인간관계의 전통을 확립하고 전수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덕과 지혜를 겸비한 연장자 애자와 사춘기 청년 사이의 남성 동성애로서, 희랍의 자유민들은 누구나 애인과의 에로스적 사랑을 향유하며 사는 것을 삶의 이상으로 삼았다. 플라톤은 희랍의 에로스 전통의 타락과 변질에 맞서 에로스적 사랑에서 향유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데에 한평생을 바쳤다. 플라톤에 의하면, 희랍의 에로스는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공식적인 문헌에 기록된 소년애(동성애)는 그 당시에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남성 연장자와 소년과의 사랑은 이성과의 사랑과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의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성인 남자와 소년 간의 동성애로서, 덕을 키워주는 에로스(김인근, 2005)였으며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연정을 가지듯이 동성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감정의 공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동성과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허용할 정도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플라톤의 향연은 그리스 시대 남성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례를

제공(권혜경, 2014)하는데 고대 그리스의 연애관이 남성과 여성이 중심이 된 이성애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여성끼리, 혹은 남성끼리의 동성에 관계 역시 연애의 범주에 포함시켰음을 반영(권혜경, 2014)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가치관이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받아들이면서 매우 관용적인 성격을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 시대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이 만들어낸 애착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 취향에 머무르기 보다는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 곧 미숙한 소년들을 성숙하게 길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는 사회적 믿음이 바탕이 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권혜경, 2014).

고대 그리스에서 행하여졌던 동성애는 그 당시에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형태였다. 성인 남성들이 소년들을 교육하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혜롭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기여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동성과의 사랑이 찬반 논쟁이 되는 일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 대한 사랑 또한 편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IV. 아가페 사랑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아가페의 사랑은 신앙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경을 제외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논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숙(2015)의 서술에 의하면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삼위일체 사랑은 사랑 자체의 충만한 속성들로 인해 자신으로부터 자신 안에 세상을 창조했다 라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아가페로 정의하는데 아가페는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 아가페는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들 중에서 지고의 가치를 지니며 가장 숭고하고 고차원적인,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송은신, 2024).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택하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자력으로 행하기에 어려운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의 사랑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가페 사랑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고찰해보면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겠다. 교육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어려움이 따른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사적으로 대하고 공적으로 가르침에 있어서 사랑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사랑의 성질, 혹은 사랑의 본성은 고정된 실체로 환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개념, 명사로 범주화될 수 없는 축소되고 폐쇄될 수없는 창조적 움직임이다.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본성은 고갈이 아닌 넘침(excess)이며 위축이 아닌 풍요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provoke) 역동적인 에너지다. 역동적인 삼위일체의 내재적 사랑의 연합은 존재를 창조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며 돌보고 양육한다. 이 사랑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라 하며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김정숙, 2015).

특히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피교육자에게 사랑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육하는 대상을 향한 끝없는 관심과 애정이 요구된다. 가르침을 받는 대상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이 교육을 받음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시의적절한 필요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형성하는 작업이며 가르침과 수련을 통하여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교사의 역량 또한 중요하지만 학생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교육을 통하여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독교적 사랑의 자발성은 모든 합리적 계산이나 계획에 반대됨을 의미한다. 합리적 계산으로 보아서 희생이 무익할 때에도 아가페는 주며 희생한다. 아무런 희망의 토대가 없어 보일 때에도 아가페는 씨앗을 뿌린다(Nygren, 1953).

현재 피교육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다림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자로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에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육현장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V. 에로스 사랑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플라톤의 『향연』을 통하여 언급되기 시작한 에로스는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고 논의할 때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사랑의 유형 중 하나이다. 에로스의 사랑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감정을 포함하며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혜를 추구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에로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을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한다. 이는 현재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이며,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현재의 불완전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다 나은 그리고 더 발전된 삶을 추구하는 에로스의 삶인 것이다(김영철, 2020).

에로스는 자기성찰을 염두에 두려고 한다. 비단 육체적인 감각이나 욕구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타인을 사랑하면서 자신 또한 그 사랑을 위하여 이전의 과오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우리가 올바르게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나 그 밖의 다른 덕을 증진시켜 줄 수 있어야 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위해 사랑을 얻고자 해야 한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적인 관계여야 한다(장영란 · 황수영 · 신지영 · 강미라, 1999).

에로스는 지혜를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면서 교육적 성격을 띠게 됨을 시사하며 에로스를 주제로 한 플라톤의 『향연』은 고대 아테네의 교육과 교사, 이상적 교육의 방향, 교육의 현실적 제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 저작이다(장지원, 2016). 에로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와 같은 감각적인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는 타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지혜와 덕을 함양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교육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보다 먼저 아름다움의 사다리를 올라간 존재이며, 아름다움의 위계에 대해 보다 심화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교사는 교육적 사랑을 매개로 학생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생이 아름다움의 사다리를 올라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지한 존재이다(윤영돈, 2017).

교사는 학생을 대하면서 그러한 사제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르침을 전하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교사와 학생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하겠

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학생은 겸손한 자세로 수업을 들으면서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에로스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논할 때에 중요한 사실은 『향연』에서 ‘동성애’가 언급되었다는 것인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년애를 가감 없이 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남성 간의 동성애는 향연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김인곤, 2005)라고 말할 수 있는데 『향연』은 우리가 ‘교육적 성애관계’라 부를 수 있는 동성애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소년 간의 성애 관계이다. 이 관계는 나이 든 남자가 젊은 남자를 주도하여 덕을 가르친다(김인곤, 2005)는 특징을 가진다.

플라톤이 묘사하는 에로스는 육체적 관계 혹은 동성애로 함몰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에로스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친밀한 인간관계는 성숙한 자(erastē, 사랑하는 자)와 소년(eromenos, 사랑 받는 자)으로 이루어져 있다. 플라톤은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보다 동성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답고 더 불사적인 자식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Symposion, 209c). 물론 플라톤은 에로스적인 친밀한 관계를 대표적으로 동성 남성 간의 관계로 제시하고 있지만 동성 여성 간의, 혹은 이성 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윤영돈, 2017).

고대 그리스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성과의 사랑이나 감정 교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정서적인 것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 남성과 소년과의 감정 교류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비난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일이었다. 이는 기독교적인 관점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간의 분명한 구별 그리고 ‘능동적인 성 역할과 수동적인 성 역할’ 간의 구별은 성에 관한 헬라스적 사고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 관계는 한시적인 것이었으며 한 사람이 이성애와 동성애를 함께 하는 경향이 보다 일반적이었다. 사랑하는 쪽은 여성과 결혼한 기혼자일 수도 있고(소년 애인처럼)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다(김인곤, 2005).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행위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성경적 원리에서 볼 때에도 오류가 존재한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축복하였고 그들의 결혼을 신성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성과의 사랑은 이러한 일들을 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현재에는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섞여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앙적인 시각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일들은 사회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을 수행하는 일에도 영향을 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작업에 혼선을 겪게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교육 현장에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교육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신앙적인 눈으로

잘 분별하여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반대 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아정체성과 정체체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그릇된 성의식이 아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장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예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인간을 형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이며 성적인 가치관의 바른 정립을 위하여 교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먼저 성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다(송은신, 2024).

인간을 형성하는 작업인 ‘교육’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교사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게 살아가며 그릇된 행동을 지양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하며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니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은 각자 다른 가치관과 사상적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이 두 유형의 사랑은 명백한 차이가 드러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가페의 사랑은 기독교적 사랑으로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러나고 있으며, 반면에 에로스의 사랑은 인간적인 성격을 띠면서 개인적인 욕망과 감각적인 면이 강조되는 사랑이라고 하겠다.

아가페의 사랑은 신앙적인 성격을 띠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드러내어 보여 주었다.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아가페의 사랑은 기독교에서 가장 절대적인 사랑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에로스의 사랑은 플라톤의 『향연』에서 처음 유래하였으며 인간이라면 응당 가질 수 있는 육체적 사랑의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본 저서에서는 이성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동성과의 사랑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이성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별을 가진 상대방에게도 얼마든지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은 이처럼 매우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이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신앙과 비 신앙적인 측면에 놓여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전 인류를 포용하는 우주적인 사랑이며 에로스의 사랑은 이성과 동성을 모두 포괄하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을 함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랑을 배제하면 교육의 과업을 수행하는 일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인간은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사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앙 안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혜경 (2014). “감히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랑”. **현대영미드라마**, 12-14.
- 김영균 (2013). 플라톤의 『향연』 편에서 에로스의 상승. **동서철학연구**, 2.
- 김영철 (2020). 종교적 사유와 에로스(eros) 개념 -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중심으로 -. **宗教教育學研究**, 246-249.
- 김영훈 (2014).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가페(Αγαπη)의 교육적 의의.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정숙 (2015). Creatio ex Amor,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 사랑으로부터의 창조신학. **신학과 세계**, 489.
- 김인곤 (2005).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4호, 플라톤 「향연」**. 서울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서병창 (2004). 카리타스에 의한 에로스와의 종합. **중세철학**, 130.
- 송은신 (2024).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교육적 함의에 대한 기독교적
- 관점의 논의 : - 니체와 푸코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양운덕 (2010). 그리스 성 담론에 나타난 에로스와의 윤리적 자기 형성 - 「향연」을 읽는 상이한 방식 - Nussbaum과 Foucault의 경우 -. **철학연구**, 170.
- 윤영돈 (2017). 플라톤의 에로스론과 도덕교육적 함의. **道德教育研究**, 148-149.
- 장영란 · 황수영 · 신지영 · 강미라 (1999). **성과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울 : 서광사.
- 장지원 (2016). 플라톤 '향연'의 교육적 해석 - 교육자의 지향과 제약을 중심으로 -. **教育學研究**, 19.

- 조흥만 (2012). 플라톤 『향연』의 에로스론 고찰.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진현경 (2022). 지식 추구의 추진력: 원천과 그 작용.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홍명순 (2007). 바그너의 파르지팔과 에로스와 아가페의 문제. **헤세연구**, 206-222.
- Nygren. (1953). *Agape and Eros*. Philadelphia, US : The Westminster Press.
- Plato. (2008). *The Symposium*. New York, US : Cambridge University Press.